

관한 研究報告에 의하면 建設期間을 8年으로 단축시킴으로서 石炭보다 原子力發電쪽이 앞으로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結論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리이드타임을 단축시키는 것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착실하게 달성되고 있으며, 認許可體制가 안정되면 리이드타임의 短縮

이 확실해지리라는 전망이다.

AIF는 「産業界는 原子力發電所運轉의 개선에 노력하여 성과를 쌓아왔으므로 規制過程도 대폭 安定方向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原子力發電所 發注에로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고 있다.

日電中研, USERS에 正式加盟

國際情報通信網完成

日本の 電力中央研究所는 최근 歐洲發送配電事業者聯合會(UNIPEDA)의 原子力發電情報交換시스템(USERS)에 가맹하여 유럽 여러나라와 직접 原子力發電情報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USERS는 1984年 6月 유럽의 8개국에 의해서 設立되었는데, 日本에 대해서도 가맹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가맹이 된 것이다. 이 電力中央研究所에서는 이미 美國의 原子力發電運轉研究協會(INPO) 등과 통신위성으로 연결해서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과도 직접 情報交換이 행해지게 되어 美國, 日本, 유럽사이의 國際原子力發電情報網이 완성되었다.

또, 이 研究所에서는 1983年 6月에 원자력정보센터를 설립하여 原子力發電所의 運轉에 관한 内外의 情報를 수집·분석해서 原子力發電所의 安定運轉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原子力發電情報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해서 얻은 교환으로 原子力發電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이다.

지금까지 海外와의 情報交換에 대해서는 통신위성을 통해서 美國의 INPO, 原子力安全解

析센터(NSAC)와 교류를 해왔었다. 따라서 유럽의 原子力發電情報에 대해서는 美國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日本과 유럽사이에서 오가는 情報交流는 美國을 통한 간접적인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1984年 6月에 原子力發電所의 運轉停止나 安全 등에 관한 運轉情報를 유럽 각국사이에서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USERS가 설립되었고, 日本에 대해서도 참가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가맹을 하게 된 것이다.

USERS에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 8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의 情報交流에서 얻어지는 유럽의 原子力發電運轉情報는 日本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 및 信賴性的의 向上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研究所에서는 日本 國內의 情報交流에 대해서도 작년 가을부터 原子力發電에 관한 부가가치통신망(VAN)이라고 할 수 있는 原子力發電시스템(NICS)의 運用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번의 국제연락망의 완성으로 인해서 内外의 高度情報活用體制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